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이탈리아관

2023 대한민국

잠든 물은

무엇을 꿈꾸는가?

Che cosa sogna l'acqua quando dorme?

What does water dream, when it sleeps?

어디서: 광주 동곡미술관·박물관

언제: 4월7일 ~ 7월9일

작가 참석 기자회견: 4월 6일 9시 30분 ~ 10시30분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의 후원 아래 광주 비엔날레에서 최초로 이탈리아 파빌리온을 선보입니다. 대한민국 광주 동곡미술관·박물관에서 2023년 4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관람객에게 공개되는 이 행사는 동곡미술관, 보문복지재단, 광주 비엔날레와의 협력 하에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이 이러한 형식으로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주관하는 미술 전시입니다.

이탈리아 전시관은 “잠든 물은 무엇을 꿈꾸는가? / What does water dream, when it sleeps?”이라는 타이틀 하에 발렌티나 부찌 큐레이터,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원장 미켈라 린다 마그리 총감독의 지휘로 다섯 명의 이탈리아 아티스트, 카밀라 알베르티, 유발 아비탈, 마르코 바로티, 아그네스 퀘스천마크, 파비오 론카토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잠든 물은 무엇을 꿈꾸는가? / What does water dream, when it sleeps?”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라는 광주 비엔날레 주제를 다시 반향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의 주제는 전환과 회복의 가능성을 가진 물을 은유이자 원동력, 방법으로 삼고 우리 지구를 저항, 공존, 연대, 돌봄의 장소로 상상하면서 구조적 분열과 차이를 통과하여 흐르면서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회복력 있는 부드러운 침투를 통해 변화를 가져오는 물이 지니는 ‘유연한’ 힘이라는 모델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주제 속에서 이탈리아 파빌리온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라는 개념이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는지에 대하여 열린 논의의 장을 제시하면서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상상 어휘를 풍요롭게 해주는 상징주의에 대하여 고찰해 볼 수 있도록 관객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이탈리아관은 다섯 아티스트의 창의적인 상상을 통하여, 그리고 과학 지식과 사회 복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의 속에서도 시각 미술이 갖는 잠재적인 시너지의 힘을 확인시키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변환, 지속가능성, 생태적 인식, 종 간의 조화라는 주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파비오 론카토는 장소 맞춤형 설치물 ‘Follow me’ (2023)를 통해 물의 혁명적 잠재성을 표현합니다. 그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영감을 얻어 광주의 젓줄이 되어 흐르는 물줄기 아래 9개의 석고 항아리를 설치함으로써 이 설치물을 1980년 5월, 그 중에서도 9일의 기간에 한정합니다. 물이 빚어내는 석고의 모습은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와 진화를 촉발하는 강력하고도 매혹적인 느린 침식의 작용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이탈리아관

유발 아비탈의 작품은 우리 자신 앞에 모든 상부 구조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우리 스스로를 세워 둠으로써 자연과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인식하게 합니다. 크로스 미디어 아트 작품인 **‘Foreign bodies’ (이물질, 2017 – 2022)**은 인간의 신체를 자연에 간섭하여 자연을 위반하고 인공화시키는 존재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간이 자신의 독특성을 상실하고 자연의 영역 밖에 있는 이물질이 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동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오랜 세월 문명 속에 편입되어 살면서 우리는 진정한 어머니로부터 더욱 멀어졌습니다. 자연의 순수함 속에 놓인 스크린 속 무용수들은 긴장 속에서 떨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의 근원을 형상화시킵니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마르코 바로티**는 마치 여과기처럼 오염물질을 잡아내는 천연적인 조개의 속성에 기반하여 키네틱 사운드 조각 설치물 **‘Clams’ (2019)**을 선보입니다. 수질 계측기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 이를 소리와 동작으로 변환시키는 이 작품에서 각각의 로봇 조개는 우리 주변 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멜로디를 노래함으로써 끊임없이 진화하는 미분음의 음악적 정경을 제공합니다. ‘Clams’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간, 자연, 과학기술의 공생 관계와 그것이 수반하는 여러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게 합니다. 이 작품이 연주하는 사이렌 소리 같은 불안정한 멜로디는 우리 스스로의 행위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삐는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속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것입니다.

카밀라 알베르티는 우리(여기서 우리란 모든 인간과 생물을 의미) 시대의 유적에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탈인간중심적 체계의 가능성에 대하여 가설을 세웁니다. 이 체계 안에서는 괴물의 이미지가 복합성, 혼재성, 끊임없는 변신을 수용하는 현대적 풍경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탈리아관에서 소개되는 새로운 혼종 신화의 주인공인 이 조각들은 도시 고고학의 결과물로서 한국의 해안가에 버려진 물건, 산업 폐기물, 인간이 만든 요소들을 수집함으로써 탄생했습니다. **“Learning in dis-binding” (2023)**을 구성하는 5개 조각품은 전체를 위한 개별성의 재고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의 협업 하에 아티스트를 초청한 서울예술대학의 안산 캠퍼스에서 2023년 1월부터 진행된 레지던스 기간 중 학생들과 함께 한 단체 작업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혼종이라는 안내선을 따라가며 마주치는 **아그네스 퀘스천마크**의 작품 **‘Underwater Investigation of the Human Being’**에서 우리는 또 다시 물을 접하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신체와 인식은 현상학적인 작용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존재론(온톨로지)에 대한 심오한 탐색의 일부가 됩니다. 인간 신체에 반하는 저항 및 복원 행위를 통하여 아직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성별이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종의 탄생을 알립니다. 아티스트는 조각품 **‘Draco Piscis’ (2023)** 외에도 이탈리아관의 개막 기간 중에 특별히 제작된 수족관 안에서 **‘Drowned In Living Waters’ (2023)** 라는 타이틀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입니다.

카밀라 알베르티, 유발 아비탈, 마르코 바로티, 아그네스 퀘스천마크, 파비오 론카토, 이 다섯 명의 이탈리아 아티스트는 모두 현대의 사회·문화 및 환경 변화와 관계된 의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아티스트 세대에 속합니다. 이탈리아관은 이들의 작품 뿐만 아니라 레지던스 프로그램, 다양한 종류와 연령대의 관람객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문화 간 교류를 통하여 이러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룰 것이며, 직접적인 경험 외에도 이탈리아관의 파트너 파티클이 준비한 멋진 디지털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이탈리아관

추가 정보 및 언론사의 요청을 위한 연락처:

Italian Cultural Institute in Seoul

segreteria.iicseoul@esteri.it

+82-2-796-0634 / 797-7792

Crediti

주최

광주광역시
광주 비엔날레

주관

주한이탈리아문화원
보문복지재단
동곡미술관

후원

주한이탈리아대사관
로마 라 콰드리날레 재단
EU가 공동 설립한 유럽 미디어 아트 플랫폼

파트너

교육 기관 – 서울예술대학교
디지털 & 경험 부문 – 파티클
음향 부문 – 뱅앤올룹슨
비비안 오 – 파브리아노
식음료 부문 – 일리, 아쿠아 라우레타나
보험 – 아트디펜더스

프로젝트 총감독

주한이탈리아문화원 미켈라 린다 마그리 원장

큐레이터

발렌티나 부찌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소피아 발디 피기
엘리사 카롤로

이탈리아관 코디네이터

김소영

비주얼 아이덴티티 및 그래픽 디자인

로베르토 비토 다미코

공간 디자인

모토엘라스티코

소셜 미디어 관리

안나 키아라 벤투리니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메이 커뮤니케이션 앤 이벤트

편집자를 위한 참고 사항

주한이탈리아문화원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 소속의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한국에서 이탈리아 문화의 진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알차고 다양한 연례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 예술, 음악, 영화, 문학, 패션, 그리고 식문화, 수공예,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요소를 아우르는 모든 창조적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주관한다.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과거의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예술의 표현 형태를 진흥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의무임을 잘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탐색과 실천에 있어서 이 시대의 주요 현안에 의식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신세대 예술가들의 선도적이고 영감으로 가득한 역할을 인식하면서, 현대 시각 예술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일에도 전념을 다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포함한 한국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국립박물관, 서울예술대학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아트선재센터 등과 같은 유수의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광주 비엔날레 및 보문복지재단과 2023년 초 맺은 새로운 파트너십은 상호간의 의미 있는 문화 교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호 인정과 깊은 존중의 정신 속에서 한국의 문화 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이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1980년의 탄압에 뒤이은 시민 항거를 기리기 위해 1995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현대 미술 비엔날레이다. 지난 23년 간 광주 비엔날레는 현대 미술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면서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이자 시각 미술 플랫폼으로 떠올랐다. 한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광주는 그 예술과 문화 전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몇십 년간, 특히 외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광주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년 5월에 일어난 군부 독재에 저항한 시민 혁명-으로 인해 민주주의 항거의 심장부로 알려져 있다. 광주 비엔날레는 90년대 중반 광주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예술을 통해 1980년 5월 항거의 상흔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 현대 미술의 성장이 비록 20여 년 이상 뒤쳐지긴 하였으나 광주 비엔날레가 한국 미술을 성장시키고 세계 무대에서 한국 미술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각 미술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인간 문명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광주

비엔날레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메시지를 지역 공동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로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다.

아티스트

카밀라 알베르티 (CAMILLA ALBERTI)

카밀라 알베르티는 자신의 예술을 통해 세계의 구축이라는 개념, 그리고 거주자/건축가, 인간/비인간 각각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존재를 통하여 정의하는 역할과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그녀는 도시 고고학의 일환으로 수집한 버려진 물건, 산업 폐기물, 유기물 파편으로 작업한다. 버리는 행위는 경계선이나 소속 일체를 삭제해 버리고, 공간을 능동적인 건설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과 경험을 위해 다양한 건설 방식을 담은 속으로 끌어들인다. 아티스트는 조각, 회화, 설치물, 공간품 자수를 통해 혼종 및 종 간 협업에 기초한 미시 세계를 구축한다. 현재 그녀의 작업은 세계 속의 인간을 변질시킬 수 있는 상상력과 내러티브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그녀는 물체를 공간으로, 또 공간은 물체로 보면서 이들을 다중적이고 혼종적이며 괴물 같은 유기체로 변모시킨다. 이러한 작업의 목적은 과거의 내러티브를 재발견함으로써 ‘타자성(otherness)의 신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상상에 실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다종의 레비아탄을 정의하는 도시 계약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카밀라 알베르티(1994년 밀라노 출생)은 현재 밀라노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최근 그라츠 아카데미(Akademie Graz, 2023), 베키오 궁(Palazzo Vecchio, 2022), 900년대 박물관(Museo Novecento, 2022), 피렌체 스트로치 궁(Palazzo Strozzi, 2021), 그라츠의 에겐베르크 성 고고학 박물관(Schloss Eggenberg, 2021) 등에 전시되었다. 2021년에는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와 문화부가 공동 주관한 ‘칸티카 21’ 공모전의 35세 이하 부문에서 수상하였고 같은 해, 유럽 현대 자동차가 신차 바이온 런칭을 위해 진행한 캠페인 #inspiredbybayon에서 선정되어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녀의 작품을 포함하고 있는 컬렉션으로는 로마 파르네지나 컬렉션, 밀라노 Nctm per l'arte, 밀라노 상설 박물관, 밀라노 코르넬리아니 컬렉션 등이 있다.

유발 아비탈 (YUVAL AVITAL)

이탈리아계 이스라엘인으로 작곡가이기도 한 유발 아비탈(1977년생)은 예술을 분류하는 고착화된 전통에 도전하면서 공공 장소, 산업 고고학 유적, 극장, 박물관 등의 다양한 공간에서 작품 활동을 펼친다. 그의 전시, 퍼포먼스, 몰입형 설치물, 총체적 예술, 대규모의 음악 ‘의례’, 콘서트에서는 무용수, 현대 음악 앙상블, 고대 문화의 거장, 개인 혹은 공동체, 멀티 비디오 프로젝트,

관조적 촉각 환경, 최첨단 기술과학 도구, 문헌 자료, 과학 데이터, 사운드 조각, 회화, 판화 작품 등을 볼 수 있다. 아비탈의 작품 각각은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체험적이고 시적이며 감성적인 미시 우주로서, 원형 및 구조, 고대 및 현대 글로벌 시대의 인간 조건, 자연 및 혼종, 의례 및 과학이라는 반복적인 주제와 관련하여 세밀하게 체계화한 언어로 세심하게 펼쳐는 탐구의 결과이다.

아비탈의 청각, 시각 작품은 마니페스타 비엔날레, 토리노 GAM, 바르셀로나 LOOP 페스티벌, 파리 도교 팰리스, 뉴욕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로마 현대미술박물관, 드레스다 오스트랄레 비엔날레, 스위스 초콜렛 팩토리 재단, 이스탄불 성 안토니오 교회, 피렌체 마리오 마리니 박물관, 밀라노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기술국립박물관 등에서 전시되었다. 2022년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 중 하나인 레조 파르마 페스티벌에서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4개의 개인전을 아우르는 메타-작품을 제작하고, 도상·사운드 설치물, 벽화, 퍼포먼스가 함께 하는 멀티미디어 작품, 비디오 아트, 설치물을 파르마 시와 레조 에밀리아 주에 있는 다양한 박물관 및 극장에서 선보였다.

마르코 바로티 (MARCO BAROTTI)

마르코 바로티(1979년생)은 베를린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시에나 재즈 아카데미에서 음악을 공부한 후 시각 미술에 사운드를 녹여내기 시작한다. 그의 작업은 자연 및 도시 환경 속에서 사운드 키네틱 작품을 통해 포스트 미래주의의 가상적 시대를 표현하는 예술 언어를 창조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다. 그는 오디오 기술, 소비재, 폐기물을 한 작품 속에서 융합시켜 소리에 의해 동작하는 조각 설치물로 변모시킨다. 그가 하는 작품 활동의 주요 목표는 동식물과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기술과학 생태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 작품들은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은유이며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티는 작품 Clams로 NTU 글로벌 디지털 아트상을, Swans로 테슬라 상을, Sound of light로 딜렉스 컬러 어워드를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린츠의 아르 엘렉트로니카, 런던의 사치 갤러리, 맨버튼의 과학 갤러리, 베를린의 푸투리움, 모스크바의 폴리테크 페스티벌, 서울의 제로원, 리버풀의 팩트, 브로츠와프의 WRO아트, 서울의 피크닉, 몬트리올의 이세아, 암스테르담의 ARCAM 건축 센터, 베를린 사일런트 그린, 아인트호벤의 더치 디자인 위크, 싱가포르 NTU, 루뱅 스테르크, 나무르의 Kikkk 페스티벌, 오스나브뤼크의 에마프, 리스본의 리스보아 소아, 히혼의 라 보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뉴 홀랜드 아일랜드와 세브카벨포트(Sevcableport) 등에서 전시되었다. 바로티는 bbk Berlin, Stiftung Kunstfonds, Emap/Emare, 미베를린 뮤직 보드로부터 지

원금을 받은 바 있고 Art of Entanglement, 베를린 과학 갤러리/ BIFOLD at TU (2023), 서울 Zer01ne Creators project(2022)과 같은 주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다.

아그네스 퀘스천마크 (AGNES QUESTIONMARK)

아그네스 퀘스천마크는 퍼포먼스, 설치물, 조각, 사진을 활용하여 인체, 그리고 인체와 바다의 관계를 논의에 붙이는 몰입형 서식지(habitat)를 창조한다. 이러한 포스트 휴머니즘의 변증법에 따르면 우리의 생물학적 구성은 우리가 환경과 맺고 있는 복잡한 관계, 그리고 계몽의 불가피한 돌연변이에 의해 정의된다. 아그네스 퀘스천마크는 관객을 자신의 뿌리를 향하는 여행으로 안내하면서 스스로의 탄생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잠재력을 드러낸다. 그녀는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그의 퍼포먼스를 통해 인체에 반하는 저항과 복원의 행위를 수행하면서 아직 인간으로서의 성별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종의 탄생을 예고한다. 아그네스 퀘스천마크(1995년생)은 로마에서 출생하였고 런던의 캔버웰 아트 컬리지의 파인 아트 과정에서 학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뉴욕에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뉴욕의 플랫폼 인스티튜트에서 성적 장학금을 받고 예술 석사 과정을 다니고 있다. 그녀의 가장 최근 프로젝트로는 제네브 현대미술센터의 The Butterfly Dream, 로마의 FOROF, 밀라노의 카사 플레시아트에서 진행한 퍼포먼스, 런던 오렌지 가든에서 소개된 개인전 'TRANSGENESIS', 로마 마시모 궁전의 폴로 예배당에서 수행한 퍼포먼스 등이 있다. 2022년에는 Circa Art x Dazed 어워드에서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었으며 PerformIstanbul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초청받았다. 2019년에는 그리스 포로스의 포를란 스튜디오와의 협업 하에 미드워터 레지던시에 참여하였고 안세도니아의 하이퍼마렘마 단체전 '수중도시'에 참여했다.

파비오 론카토 (FABIO RONCATO)

파비오 론카토는 자신의 작품 활동을 통해 에너지와 물질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변형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안정된 형태의 이면에 있는 작용에 대한 현상의 자체적 표현으로서 조각 재료와 예술의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한다. 조각은 그 형태가 드러나는 동안 뿐만 아니라 관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행위와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에 놓인다. 그의 이러한 성찰은 재료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잠든 상태에서부터 재료를 깨우기 위해 비판적 참조 체계 속에 이를 배치하는 재료에 대한 그의 태도를 통해 전개된다. 그의 목표는 작품의 창작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소비까지도 상상력의 발휘를 기반으로 한 인식의 구축을 지향하는 탐색의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파비오 론카토(1982년 파도바 출생)는 현재 밀라노에 거주하면

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밀라노 브레라 국립미술원에서 회화를 공부하였고 2018년에는 마스트리흐트의 얀 반 아이크 아카데미 레지던스에 2회에 걸쳐 참여하였다. 또 2017년 ‘상하이 어워드’를 통해 상하이 화동사범대학 레지던스에 참여하였다. 그는 2022년 로디의 플라테아 팔라쑈 갈레아노, 브레시아 자연과학시립박물관, 2021년 슬로베니아 세초울레 (Sečovlje) 살리나 자연 공원, 2019년 밀라노 오픈박스, 2018년 바싸노 델 그라파의 시립 박물관에서 각각 개인전을 열었고 단체전으로는 2021년 베네치아의 베빌라과 라 마사 (Bevilacqua la Masa) 재단, 트레비소의 프리조니 갤러리 이마고 문디 재단, 2020년 베르가모의 GAmEC, 트렌토의 MUSE, 2015년 트레비소의 TRA를 들 수 있다.

발렌티나 부찌 (VALENTINA BUZZI)

큐레이터

발렌티나 부찌(1995년생)는 큐레이터이자 이탈리아 현대 미술을 비평하는 독립 비평가로서 현재 이탈리아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면서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사회문화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2020년 한국으로 오기 전에는 스위스 제네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의 Arts at Cern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대미술과 과학 연구의 만남이 갖는 잠재성에 대한 연구와 분석 계획을 전개하였고 이는 그녀의 워릭 대학 석사 논문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현대 미술의 학제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양상과 지식 간의 격차 해소를 지향하기로 활동 방침을 정하고 패러다임의 틀로서 영속성과 복합성의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발렌티나는 독립 큐레이터이자 컨설턴트로서 다양한 미술 갤러리, 아티스트, 기업, 유럽 및 아시아의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Artsy & Plus Magazine과 같은 주요 국제 전문지에 기고하고 있으며 여러 전시 도록에 미술 비평을 제공하였다. 그녀는 인공 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예술을 문화 유산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Reasoned Art의 아시아 적용을 위한 개발에 있어서 외부 컨설턴트로도 일하고 있다. IULM 대학에서 미술, 디자인, 미디어로 학사 학위를, 워릭 대학에서 국제 문화 정책과 경영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자로서 발렌티나는 바르셀로나 ELISAVA 디자인 스쿨 방문 교수로서 미술 이론을 강의하였고 이탈리아문화원과도 협업하고 있는데 2021-2022년에는 이탈리아 현대미술의 날을 맞이하여 주한이탈리아문화원과의 협업 하에 다양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발렌티나는 국제 박물관협의회의 아카데미 회원이기도 하다.